

# 공공도서관 추천 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의 대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 A Study on the Impact of Public Library Recommended Books and Curated Books on Borrowing

김혜련 (Haeryoun Kim)\*

### 초록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추천도서, 큐레이션 등으로 이용자에게 추천된 도서가 실제로 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의 대출 증가 여부를 A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2년부터 '24년까지 A 공공도서관의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 총 736건에 대해 추천되기 전월 대비, 추천 당월부터 추천 2개월 후까지 3개월간의 대출 변화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추천 당월에 추천된 자료의 64.9%가 대출되었으며, 추천 2개월 후에는 추천된 자료의 81%가 대출되었다. 추천된 자료와 추천되지 않은 자료를 비교하기 위하여 '24년 6월 대출 목록을 기준으로 '24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추천된 도서 119건에 대해 '23년 12월 대비 대출 증가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추천된 자료는 88.2%가, 추천되지 않은 자료는 13.3%가 대출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는 추천되지 않은 자료에 비해 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recommended books and curated books actually were used by users, focusing on the case of A Public Library. From 2022 to 2024, a total of 736 recommended and curated books from A Public Library were investigated for changes in loans over a three-month period, from the month before the recommendation, the month of the recommendation, to two months after the recommendation. As a result, 64.9% of the recommended books were borrowed in the month of recommendation, and 81% of the recommended books were borrowed two months after recommendation. In order to compare recommended and non-recommended books, the loan increase status was analyzed for 119 books recommended over the six months from January to June 2024, based on the loan list in June 2024, compared to December 2023. As a result, the recommended books increased lending by 88.2%, and the non-recommended books increased lending by 13.3%. This confirmed that recommended and curated books tend to have more borrowing than non-recommended books.

키워드: 추천도서, 큐레이션, 대출, 공공도서관

Recommended books, Curated books, Loan, Public library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hryoun75@gmail.com)

논문접수일자 : 2025년 8월 25일 논문심사일자 : 2025년 9월 2일 게재확정일자 : 2025년 9월 18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6(3): 329-353, 202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5.36.3.329>

※ Copyright © 2025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시민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주요 목적의 하나이다. 도서관법에서는 공공도서관을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도서관법 제4조 제2항 제1호)으로 정의한다. 공공도서관이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제공하는 것도 이용자가 그 자료를 읽고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4년 기준, 전국의 1,296개 공공도서관에서는 1관당 인쇄도서 95,976권, 전자도서 111,265권을 제공하였고, 이를 위해 자료구입비 88백만 원을 지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5).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제공되는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는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

남영준(2021)은 '11년부터 '20년까지의 공공도서관 대출 상위 5,000위까지의 도서 대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출데이터의 80~82%가 전체 상위권 대출의 90%에 해당하며 약 27~29%가 전체 상위권 대출의 50%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공공도서관 대출패턴에 파레토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파레토법칙이란 '결과'의 약 80%가 20%의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로, 흔히 80/20 법칙이라고 한다(Wikipedia, 2001). 도서관의 경우에는 대출의 80%가 도서관 장서의 20%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도서관 장서의 일부만이 주로 이용되고 다수의 도서들은 이용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도서관 소장 도서 중에 상당수는 입고된 후 한 번도 이용자에 의해 대출

된 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김영석 외, 2018).

파레토법칙과 반대되는 원리로 '롱테일 효과'라는 것이 있다. 롱테일 효과는 결과를 잘 생산해 내지 못하는 나머지 80%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한다. 하위 80%의 총 판매량이 상위 20%의 총 판매량을 초과하는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온라인 비즈니스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이 특정 제품으로 일제히 몰리던 데서 다품종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존닷컴으로, 아마존닷컴 매출의 상당 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은 책에서 발생하고 있다(위키백과, 2006). 도서관 장서에도 롱테일 효과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 장서의 일부만이 이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영석 외(2018)는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어떤 도서가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거나 최근에 어떤 자료가 새롭게 들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출 편중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공공도서관은 오래전부터 소장 도서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소개하고 눈에 띄게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신착도서 알림, 추천도서 목록, 북큐레이션, 전시 서가 운영 등이 이러한 노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도서를 추천하거나 특정 주제별로 관련 도서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어떤 도서가 있는지를 인식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도서관이 도서를 추천하는 것은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도서 선택의 편의를 높여 이용자를 도서관 장서로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자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했지만 이용

자에게 유익한 자료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남영준, 2021). 북큐레이션 서비스도 목적 면에서는 추천도서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많은 자료를 필터링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김미현, 박지홍, 2024; 이수상 외, 2022).

각 공공도서관에서 추천하고 있는 추천도서, 선정하고 있는 큐레이션 도서들이 실제로 이용자의 선택을 받아 이용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서비스가 당초 목적에 맞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천도서 서비스, 큐레이션 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소개되는 도서가 실제로 이용자의 선택을 받아 대출 증가로 이어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추천도서, 큐레이션 도서의 대출량이 추천 전과 추천 후에 실제로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추천도서, 큐레이션 서비스가 대출 편중 현상을 극복하고 소장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도서관의 추천도서 서비스, 큐레이션 서비스가 도서의 이용 증가 효과를 실제로 발생시키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추천도서 서비스와 큐레이션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A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A 공공도서관의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 선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해 담당자 서면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A 공공도서

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의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 목록을 수집하여 그 현황을 분석하였다. A 공공도서관에서는 3년간 추천도서로 243권, 큐레이션 도서로 493권 등 총 736권의 도서를 이용자들에게 소개하였다. 선정된 도서 736권의 주제분야, 발행연도 등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로 도서관 정보나루를 통해 A 공공도서관의 도서 대출데이터를 추출하여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 736권 각각에 대해 추천 전과 추천 후의 대출량 변화를 확인하였다. 대출량은 해당 도서가 추천되기 전월 대비 추천된 당월, 추천 다음달, 추천 2개월 후 등 3개월간의 대출건수 변화를 월별로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셋째, 추천된 도서의 대출 증가 현황이 전체 장서의 대출 증가 현황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4년 6월 대출목록을 기준으로 '24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추천도서와 나머지 도서들이 '23년 12월 대비 대출증가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도서의 추천 유무가 도서 대출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의 추천도서 서비스, 큐레이션 서비스가 도서 대출 증가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 2. 도서 추천과 큐레이션 서비스

### 2.1 추천도서 서비스

추천도서란 수많은 장서 중에서 이용자에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독자의 독서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도서를 목록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추천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사서가 좋은 책을 선정하여 이용자를 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이용자들이 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업이다. 추천된 도서는 이용자의 독서 흥미를 유발하고 도서 선택의 편의를 제공한다(고다숨, 윤유라, 2022; 남영준, 2021; 이수상의, 2022).

추천도서 서비스는 공공도서관에서 오랜 기간 제공해온 서비스이다. 막연한 요구를 가진 이용자의 도서 탐색과 선택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각 도서관은 자관의 소장도서 중에서 일정량의 도서를 선정하여 추천도서 목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추천도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다숨, 윤유라, 2022; 박미진, 2023).

도서관의 추천도서는 어떤 도서들로 선정되는지, 실제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추천도서를 선정하고 있는지에 관해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추천도서 목록의 특성에 대해서는 남영준(2021)의 연구와 박미진(2023)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각각 베스트셀러 목록, 타 기관 추천도서 목록과 도서관의 추천도서 목록을 비교함으로써 추천도서 목록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남영준(2021)의 연구에 따르면, 도서관의 추천도서 목록은 베스트셀러 목록과 비교하여 주제분야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고 저자와 출판사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교양서 위주였다. 이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의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추천도서 목록과 유통판매서적회사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비교한 결과로, 추

천도서와 베스트셀러 목록에 중복으로 포함된 도서는 31.46%였다. 이는 도서관의 추천도서 목록은 도서 판매량에 근거한 베스트셀러 목록과는 다른 구성임을 보여준다. 이용자의 수요 충족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특정 주제나 저자, 출판사에 편향되지 않게 다양한 도서를 이용자에게 추천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목록임을 알 수 있다.

박미진(2023)은 청소년을 위한 추천도서 목록 중에서 국립도서관과 광역대표도서관의 추천도서 목록과 교육계, 출판계, 민간단체의 추천도서 목록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의 추천도서는 성문화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특히 '저자의 권위 및 균형', '출판사의 성격 및 균형' 요소는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기준이었다.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출판사의 도서를 추천하고 있으며, 신간뿐 아니라 비교적 오래된 자료도 추천하고 있어 타 기관 대비 다양한 도서가 추천도서 목록에 포함되었다. 또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도서의 검색형 목록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었고, 한 번에 많은 도서가 수록된 목록을 발표하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매월 추천도서를 지속적으로 추천하여 최신성과 누적성 면에서 강점을 보였다.

이를 통해 도서관의 추천도서 목록은 주제별, 저자별, 출판사별 다양성과 균형을 고려하여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은 다양한 도서를 이용자에게 소개하여 균형 있는 독서 생활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기관과는 차별화된 기준으로 추천도서를 선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공공도서관에서 추천도서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다숨과 윤유라

(2022)의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고다솜과 윤유라(2022)는 12개 지역대표도서관을 대상으로 추천도서 목록 개발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추천주기는 1달 단위가 75%로 가장 많았고, 추천권수는 10권 이내인 곳이 50%, 자관의 소장 도서에 한정하여 도서를 선정하는 곳이 75%였다. 도서 선정 시에는 도서관이 추구하는 목적과 양서의 제공, 독자의 독서흥미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표도서관들은 대체로 추천도서 목록이 유용하며 이용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추천도서 서비스는 이용자가 도서를 발견하고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된다. 자관의 소장 도서 중에서 너무 많지 않은 책수의 도서를 선정하여 일정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추천함으로써 이용자의 관심을 계속해서 환기하고 도서 이용을 독려한다. 다양한 주제, 다양한 저자, 다양한 출판사의 도서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균형 있는 독서를 안내하고 지원한다. 결국은 도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가 도서를 선택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 2.2 큐레이션 서비스

큐레이션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유용한 정보를 분류하고 선별하여 수집하며 재가공하여 배치하는 일'을 의미한다(김미현, 박지홍, 2024; Bhaskar, 2016). 이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시를 위한 작업을 의미했는데, 정보 과잉의 시대가 되면서 콘텐츠,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개념이 되었다. 분류·선별·재가공의 큐레이션 활동이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서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도서를 대상으로 한 큐레이션을 '북큐레이션'이라고 한다. 김영석 외(2018)는 북큐레이션을 '도서관의 수많은 도서 중에서 특정 이용자 집단에게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제의 도서를 선정하고, 이를 도서관의 특정 위치나 장소에 전시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백지원(2018)도 '도서관이 장서 활용도 향상을 목적으로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도서관 자원을 수집, 구성하여 비치하거나 전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수상 외(2022)는 '사서에 의해 특정한 목적과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된 도서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공간에 비치하여 이용자들이 도서를 발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행위'라고 하였다. 북큐레이션이 도서의 선정뿐 아니라 비치를 통해 보여주는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도서관의 큐레이션 서비스는 기준에 많이 활용했던 주제나 도서를 탈피하여 새로운 주제와 도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게 할 수 있다(김미현, 박지홍, 2024). 이용자는 방대한 도서관 장서를 브라우징하지 않고도 흥미로운 도서를 발견할 수 있으며, 관심을 받지 못하던 도서가 이용자의 선택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는 도서관 장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도 한다(김영석 외, 2018; Ranasinghe & Chung, 2019).

백지원(2018)은 추천도서가 개별 저작의 주제에 초점을 두고 신간 도서 위주로 선정된다면, 큐레이션은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선정된 도서들을 범주화하여 해당 테마에 대한 집합적, 종합적 시각과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때 '테마'는 사회적 이슈, 생활 주변의 문제, 특정 시기의 관심사, 이슈가 되는 인물, 사

회·문화적 현상 등 이용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으로, 도서분류법의 '주제'와는 구분된다. 큐레이션 도서는 장서에 대한 이용자의 흥미를 불러일으켜 기존 분류체계 하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도서가 활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서관 자원 유형 전체의 고른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더 전문적이고 심화된 정보이용 단계로 이용자의 정보 활용을 유도할 수 있다(백지원, 2018).

큐레이션 서비스의 효과와 실제로 도서관에서 큐레이션 도서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큐레이션 서비스 효과에 대해서는 백지원과 표순희(2020), 박우정과 노영희(2020), 김미현과 박지홍(2024)의 연구가 있다.

백지원과 표순희(2020)는 공공도서관 이용자 294명을 대상으로 테마 컬렉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테마 컬렉션을 알고 있는 이용자의 장서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높았으며, 효과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었다. 특히 생각지 못한 새로운 도서의 이용에 대한 만족에 높은 효과 인식을 보였다. 박우정과 노영희(2020)는 도서관 이용자 134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이용자들은 큐레이션 서비스 필요성에 긍정적이었으며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도서관 재방문 의도, 타인에 대한 도서관 추천 의사,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구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미현과 박지홍(2024)은 공공도서관 북큐레이션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 5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지속이용의도 간의 관계

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큐레이션 도서의 다양성과 흥미성은 이용자의 만족도에, 발견성과 유용성은 이용자의 만족도와 지속이용의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울과 경기지역 공공도서관 4곳의 관장 및 담당 사서를 면담 조사한 표순희와 백지원(2019)의 연구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먼저 '테마'를 선정하는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큰 범주의 테마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자료실별로 구체적인 테마를 선정한다. 테마가 결정되면 여러 주제 분야에서 해당 테마와 관련된 도서를 선정한다. 이때 사서들은 편향되지 않은 장서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큐레이션 도서는 도서관별로 한 곳 혹은 여러 곳에서 전시 형식으로 배치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전시'의 기법은 큐레이션 도서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주요 위치에 도서를 전시하는 것은 도서의 가시성과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의 눈에 띄게 하며 궁극적으로 선택되게 만든다(Baker, 1986). Jones et al.(2011)은 제임스 매디슨 대학교 동부캠퍼스에서 도서관 로비에 테마별 도서를 전시하여 가시성을 높인 결과, 전시된 도서의 대출 건수가 2배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Camacho et al.(2014)은 연평균 이용 횟수가 4회 미만이던 도서를 전시한 이후 연평균 이용 횟수가 58% 증가하였음을 실험적 연구를 통해 증명하였다. 전시 기법이 도서의 이용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들이다. 큐레이션 도서가 '전시'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소개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게 한다.

정유라와 이지연(2017)은 큐레이션 도서의 전시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도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테마 전시를 제공하는 3개 도서관의 사서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테마 전시는 이용자의 다양한 자료 이용을 도울 뿐 아니라 사서에 대한 인식 및 도서관 평가에도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추천도서와 큐레이션 도서의 특징 및 효과, 전시 기법의 도서 대출 증가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천도서나 큐레이션 도서의 선정 및 제공이 해당 도서의 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실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의 대출량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서비스가 당초 목적인 도서 이용 증가에 미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도서관의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서비스 운영 방향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설계

#### 3.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 선정하여 제공하는 추천도서 혹은 큐레이션 도서의 대출이 실제로 증가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A 공공도서관의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의 대출 현황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A 공공도서관은 서울에 소재한 장서 50만 점 규모의 공공도서관으로, 성인 기준으로 등록 회원 15만여 명, 연간 도서 대출자 8만여 명,

대출 도서 수 17만여 점이다. A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도서 정보로는, 1) 신착자료 목록, 비도서 목록, 연속간행물 목록, 족보 목록 등 소장자료 유형별 목록을 제공하는 자료목록, 2) 열람실별 다대출 도서를 소개하는 베스트 대출 도서, 3) 도서·비도서·잡지의 추천자료를 소개하는 월별 추천자료, 4) 주제별 추천잡지, 주제가 있는 공간, 이달의 문학가, 이달의 인물, 다국어 짝꿍도서, 어린이 온라인서가 등 주제별로 자료를 큐레이션한 주제별 독서정보, 5) 향토자료 북큐레이션, 큰글자도서 북큐레이션, 빅데이터로 본 이달의 도서, AI 추천 도서 등 다양한 형식의 추천도서를 소개하는 기타 독서정보 등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러한 서비스 중에서 '월별 추천자료'가 추천도서 서비스에 해당하며, '주제별 독서정보'와 '기타 독서정보'가 큐레이션 서비스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위한 도서 추천 및 큐레이션 목록을 살펴보고자, '월별 추천자료' 중에서 '도서', '주제별 독서정보' 중에서 '주제가 있는 공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제가 있는 공간'은 이용자 일상의 관심사에서 테마를 선정하고 있어 추천도서와 함께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달의 문학가'는 한강, 무라카미 하루키 등 유명 작가 중심의 큐레이션 목록으로 추천 여부와 관계없이 도서관 내 대출 상위 도서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달의 인물'은 정약용, 니체 등 고전 인물 중심의 큐레이션 목록으로 추천 여부보다는 다른 독서 동기가 더 요구될 것으로 보였다. 그 외에는 특정 유형이나 특정 대상으로 제한된 큐레이션 목록들이었다. 이들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표 1〉 A 공공도서관의 도서 정보 제공 서비스

구분	서비스명	주요 내용	서비스 주기
자료목록	신착자료 목록	신착자료 목록 제공	수시
	비도서 목록	소장 비도서자료 목록 제공	수시
	연속간행물 목록	소장 연속간행물 목록 제공	부정기
	족보 목록	소장 족보자료 목록 제공	부정기
베스트 대출도서	베스트 대출도서	5개 열람실별 다대출 도서	월간/격월간
월별 추천자료	도서	대상(일반·청소년·어린이)별 추천도서 목록 제공	월간
	비도서	주제(테마)별 추천영화 목록 제공	월간
	잡지	신착 잡지의 주요 기사 목록 소개	월간
주제별 독서정보	주제별 추천잡지	주제(테마)별 잡지 큐레이션 목록 제공	계간
	주제가 있는 공간	주제(테마)별 도서 큐레이션 목록 제공	격월간
	이달의 문학가	작가별 도서 큐레이션 목록 제공	월간
	이달의 인물	인물(테마)별 도서 큐레이션 목록 제공	월간
	다국어 짝꿍도서	주제(테마)별 큐레이션 번역본 및 원작 소개	계간
	어린이 온라인서가	주제(테마)별 어린이도서 큐레이션 목록 제공	월간
기타 독서정보	향토자료 북큐레이션	'서울' 관련 큐레이션 도서 목록 제공	계간
	큰글자도서 북큐레이션	주제(테마)별 큰글자도서 큐레이션 목록 제공	계간
	청소년관 북큐레이션	주제(테마)별 청소년도서 큐레이션 목록 제공	격월간
	스마트도서관 북큐레이션	주제(테마)별 스마트도서관 큐레이션 목록	부정기
	빅데이터로 본 이달의 책	도서관 정보나루 데이터 분석에 따른 도서 목록	월간

### 3.2 데이터 수집

#### 3.2.1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 목록

A 공공도서관의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 대출 현황 분석을 위해,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의 '월별 추천자료'의 일반인 대상 '도서' 추천 목록과 '주제가 있는 공간'의 도서 목록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는 A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도서 목록을 추천연도와 추천월로 구분

하여 수집하였다. '월별 추천자료(도서·일반)'는 '22년에는 매월 8권, '23년부터는 6권씩 선정되어, 3년간 총 243권이 추천도서로 선정되었다. '주제가 있는 공간' 자료는 연간 6회씩, 격월간으로 추천되었으며, '22~'23년에는 30권씩, '24년에는 월별로 15~20권씩 선정되어 총 736권이 큐레이션 도서로 구성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736권의 도서 중 추천도서와 큐레이션 도서

〈표 2〉 A 공공도서관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 현황

연도	구분	월별 추천자료			주제가 있는 공간			계
		목록 수	목록당 도서 수	도서 계	목록 수	목록당 도서 수	도서 계	
2022년		12	8	96	6	30	180	276
2023년		12	6	75	6	30	199	274
2024년		12	6	75	6	15~20	114	186
계		36	-	243	18	-	493	736

간, 큐레이션 도서 목록 간 중복 도서는 총 35권으로, 중복을 제외하고 실제 도서의 수는 699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 도서가 추천되기 전과 후의 대출량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중복 도서라도 서로 다른 시기에 추천된 경우를 각각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중복 추천된 도서를 제외하지 않고 총 736건의 도서를 개별 데이터로 간주하고 분석하였다.

### 3.2.2 도서관 장서의 대출목록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의 대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A 공공도서관 장서의 대출목록을 수집하였다. 도서관 정보나루를 통해 '21년 12월부터 '25년 2월까지 총 39개월간의 A 공공도서관 장서 대출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는 추천되기 전월 대출데이터를 기준으로 추천 당월, 추천 1개월 후, 추천 2개월 후의 3개월간의 대출데이터를 함께 비교하기 위함이다.

수집된 장서 대출목록은 연도별로 '21년 12월 411,781건, '22년 1월 412,883건, '23년 1월 385,434건, '24년 1월 429,699건, '25년 2월 446,174건의 데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록번호에 따라서는 도서 권수가 2권 이상인 경우도 있으므로 데이터의 수가 곧 장서의 수라고 할 수는 없고 등록된 레코드의 수로 볼 수 있다. 목록 데이터는 '21년 12월부터 '22년 7월까지는 증가하다가 '22년 8월 42,353건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서폐기 등의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출목록에는 일반도서, 비도서, 어린이도서, 외서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 4. 분석결과

### 4.1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 현황

먼저 A 공공도서관의 담당 사서를 통해 '월별 추천자료'와 '주제가 있는 공간'의 도서 선정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았다. '월별 추천자료'는 도서관에 새롭게 입수된 도서 중에서 주제별로 고르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전담 사서 16명으로 구성된 협의회 운영을 통해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도서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주제가 있는 공간'의 경우는 추천 시기 별로 이용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테마를 협의를 통해 먼저 정하고, 자료실별로 해당 테마의 도서를 선정하여 해당 자료실 내 전시하고 있다. 선정된 도서 목록은 도서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지되고, 리플릿을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추천도서와 큐레이션 도서의 성과 평가는 해당 도서의 이용자 수를 산출하여 집계한다고 하였다. A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도서 정보 제공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독서 동기를 유발하며, 최신 트렌드의 도서 선정을 통해 이용자가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 목록을 작성한다고 밝혔다.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의 주제별 현황을 살펴해보았다. <표 3>과 같이, '23년까지 문학 분야 도서만 선정했던 큐레이션 도서는 물론, 추천도서도 문학 분야가 45.3%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추천도서의 경우, 매년 문학 분야 도서를 40% 이상 선정하고 있으며 자연과학 분야 도서의 추천 비율이 가장 낮았

〈표 3〉 A 공공도서관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의 주제 분야

주제	추천도서(월별 추천자료: 도서·일반)				큐레이션 도서(주제가 있는 공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총류	5 (5.2%)	3 (4.0%)	7 (9.7%)	15 (6.2%)	0	0	5 (4.4%)	5 (1.0%)	20 (2.7%)
철학	11 (11.5%)	8 (10.7%)	6 (8.3%)	25 (10.3%)	0	0	24 (21.1%)	24 (4.9%)	49 (6.7%)
사회 과학	8 (8.3%)	7 (9.3%)	6 (8.3%)	21 (8.6%)	0	0	2 (1.8%)	2 (0.4%)	23 (3.1%)
자연 과학	2 (2.1%)	1 (1.3%)	2 (2.8%)	5 (2.1%)	0	0	1 (0.9%)	1 (0.2%)	6 (0.8%)
기술 과학	13 (13.5%)	9 (12.0%)	6 (8.3%)	28 (11.5%)	0	0	20 (17.5%)	20 (4.1%)	48 (6.5%)
예술	4 (4.2%)	6 (8.0%)	2 (2.8%)	12 (4.9%)	0	0	5 (4.4%)	5 (1.0%)	17 (2.3%)
언어	7 (7.3%)	3 (4.0%)	2 (2.8%)	12 (4.9%)	0	0	0	0	12 (1.6%)
문학	41 (42.7%)	35 (46.7%)	34 (47.2%)	110 (45.3%)	180	199	54 (47.4%)	433 (87.8%)	543 (73.8%)
역사	5 (5.2%)	3 (4.0%)	7 (9.7%)	15 (6.2%)	0	0	3 (2.6%)	3 (0.6%)	18 (2.4%)
계	96	75	72	243	180	199	114	493	736

다. 큐레이션 도서의 경우는 '23년까지는 '문학 북큐레이션' 서비스로서 문학 분야 도서 중에서만 도서를 선정하였으며, '24년부터 '주제가 있는 공간' 서비스로 개편하며 선정 대상을 전체 분야로 확대하였다. '24년의 분야별 선정 도서 비율 분포는 추천도서의 그것과 대체로 유사했으나 언어 분야 도서는 선정되지 않았다. 또한, 추천도서와 큐레이션 도서 모두에서 종교 분야 도서는 선정되지 않았다. 분석 대상 736건의 주제별 분포는 문학 분야가 543건으로 73.8%를 차지하며, 철학 분야가 49건(6.7%), 기술과학 분야가 48건(6.5%), 사회과학 분야가 23건(3.1%)의 순이다.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의 발행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추천도서의 경우, 신규 입수된 자료 중에서 선정되고 있는 만큼 추천연도 기준으로 당해연도나 전년도 발행 자료가 많았다. 반면에 큐레이션 도서는 신규 자료보다는 특정 테마에 맞는 자료 여부가 더 중요한 기준이므로, 당해연도 자료부터 '90년대 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행연도의 자료가 선정되고 있었다. 분석 대상 736건의 발행연도별 현황을 집계해 보면, '22년 발행 도서가 171건으로 23.2%를 차지하며 '23년 발행 도서가 128건(17.4%), '21년 발행 도서가 88건(12%)이었다.

#### 4.2 전체 장서 대출 현황

도서관 정보나루를 통해 입수한 대출목록을

〈표 4〉 A 공공도서관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의 발행연도

발행 연도	추천도서(월별 추천자료:도서·일반)				큐레이션 도서(주제가 있는 공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2024년	-	-	27	27	-	-	14	14	41 (5.6%)
2023년	-	22	42	64	-	23	41	64	128 (17.4%)
2022년	54	45	1	100	4	42	15	71	171 (23.2%)
2021년	35	7	1	43	21	15	9	45	88 (12.0%)
2020년	6	1	1	7	18	11	10	39	47 (6.4%)
15~19년	1	0	0	1	82	70	12	164	165 (22.4%)
10~14년	0	0	0	0	40	22	2	64	64 (8.7%)
00~09년	0	0	0	0	12	15	1	28	28 (3.8%)
90~99년	0	0	0	0	3	1	0	4	4 (0.5%)
계	96	75	72	243	180	199	114	493	736

기준으로 전체 장서의 주제 분야별, 발행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주제별로는 문학 분야가 약 30% 비율로 가장 많고, 사회과학 분야가 약 20%, 기술과학 분야가 약 9%의 분포를 보였다. 발행연도별로는 2010년대 자료가 40~43%로 가장 많았으며, 2000년대 자료가 31~32%, 90년대 자료가 14~15%였다. 최근 자료인 2020년대 자료는 지속적인 도서 입수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장서량이 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22년 6월에는 33,829건이었던 자료가 '24년 6월에는 57,941건으로 늘었으며, 전체 장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8%에서 13.3%로 증가했다.

전체 장서의 연도별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대출이 한 번도 되지 않은 자료는 '21년 12월 69,167건(16.8%)에서 '25년 2월 61,322건(13.7%)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장서의 43~44%는 누적 대출량이 10회

〈표 5〉 A 공공도서관 장서의 주제별·발행연도별 현황

주제	'22년 6월	'24년 6월	발행연도	'22년 6월	'24년 6월
총류	18,777 (4.5%)	20,112 (4.6%)	50년이전	4 (0.001%)	4 (0.001%)
철학	23,266 (5.5%)	24,712 (5.7%)	50년대	7 (0.002%)	7 (0.002%)
종교	13,852 (3.3%)	14,455 (3.3%)	60년대	16 (0.004%)	16 (0.004%)
사회과학	83,374 (19.8%)	86,986 (19.9%)	70년대	854 (0.2%)	468 (0.1%)
자연과학	21,535 (5.1%)	22,862 (5.2%)	80년대	8,172 (1.9%)	5,241 (1.2%)
기술과학	36,481 (8.7%)	38,206 (8.7%)	90년대	62,310 (14.8%)	61,223 (14.0%)
예술	26,756 (6.4%)	29,066 (6.7%)	00년대	136,405 (32.4%)	135,864 (31.1%)
언어	16,771 (4.0%)	17,293 (4.0%)	10년대	178,646 (42.5%)	175,703 (40.2%)
문학	126,720 (30.1%)	135,233 (30.9%)	20년대	33,829 (8.0%)	57,941 (13.3%)
역사	31,927 (7.6%)	33,422 (7.6%)	미상	147 (0.03%)	509 (0.1%)
미분류	20,931 (5.0%)	14,629 (3.3%)	계	420,390	436,976
계	420,390	436,976			

〈표 6〉 A 공공도서관 장서의 대출 현황

대출횟수	'21년 12월	'22년 6월	'23년 6월	'24년 6월	'25년 2월
0회	69,167 (16.8%)	71,250 (16.9%)	59,964 (14.2%)	61,193 (14.0%)	61,322 (13.7%)
1~9회	178,242 (43.3%)	180,879 (43.0%)	186,576 (44.1%)	193,950 (44.4%)	197,223 (44.2%)
10~29회	117,110 (28.4%)	120,047 (28.6%)	125,910 (29.8%)	129,909 (29.7%)	134,256 (30.1%)
30~49회	29,467 (7.2%)	30,054 (7.1%)	31,435 (7.4%)	32,334 (7.4%)	33,173 (7.4%)
50~99회	14,659 (3.6%)	14,965 (3.6%)	15,705 (3.7%)	16,168 (3.7%)	16,681 (3.7%)
100~199회	2,685 (0.7%)	2,738 (0.7%)	2,855 (0.7%)	2,936 (0.7%)	3,022 (0.7%)
200~299회	322 (0.1%)	326 (0.1%)	335 (0.1%)	342 (0.1%)	353 (0.1%)
300~399회	96 (0.02%)	97 (0.02%)	102 (0.02%)	106 (0.02%)	104 (0.02%)
400~499회	20 (0.005%)	21 (0.005%)	22 (0.01%)	25 (0.01%)	26 (0.01%)
500회 이상	13 (0.003%)	13 (0.003%)	13 (0.003%)	13 (0.003%)	14 (0.003%)
대출도서	342,614 (83.2%)	349,140 (83.1%)	362,953 (85.8%)	375,783 (86.0%)	384,852 (86.3%)
계	411,781	420,390	422,917	436,976	446,174

미만이었으며, 10회 이상 30회 미만으로 대출된 자료가 28~30%, 30회 이상 50회 미만의 대출 자료가 7% 정도였다.

#### 4.3 추천도서와 큐레이션 도서의 대출 현황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의 추천도서와 큐레이션 도서 총 736건에 대해, 해당 도서가 추

천된 달을 기준으로 추천 전월과 비교하여 추천된 당월부터 추천된 후 2개월까지의 대출량 변화를 살펴보았다. 736건 중 1건은 대출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1건을 제외하고 총 735건의 대출량 변화를 〈표 7〉과 정리하였다. 여기서 도서별 대출량은 복본 등 동일 도서 전체를 합산하여 집계하였다.

추천된 당월에 전월 대비 대출이 증가한 도서

〈표 7〉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의 대출량 변화

대출증가 횟수	추천도서			큐레이션 도서			계	
	n월	n+1월	n+2월	n월	n+1월	n+2월	n월	n+2월
0	45	29	26	212	138	114	257	140
1~2회	163	114	77	235	248	234	398	311
3~4회	28	72	85	40	64	75	68	160
5~6회	5	19	32	5	27	30	10	62
7~8회	1	4	10	0	6	18	1	28
9~10회	0	2	4	0	5	10	0	14
11~20회	0	2	8	1	4	10	1	18
21~30회	0	0	0	0	1	2	0	2
대출증가도서	197(81.4%)	213(88%)	216(89.3%)	281(57%)	355(72%)	379(76.9%)	478(64.9%)	595(81%)
전체 계	242	242	242	493	493	493	735	735

\* n월: 추천된 달, n+1월: 추천된 다음달, n+2월: 추천 2달 후

는 추천도서가 242건 중 197건으로 81.4%였으며, 큐레이션 도서도 493건 중 281건으로 57%였다. 추천 2개월 후에는 추천도서의 89.3%, 216건이 추천되기 전보다 대출이 늘었으며, 큐레이션 도서의 76.9%, 379건이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횟수 면에서는 추천 당월에 5회 이상 대출이 증가한 도서는 12건으로 1.6% 정도의 비율이었고, 추천 2개월 후에는 5회 이상 증가 도서가 124건으로 16.9%, 11회 이상 증가 도서가 20건으로 2.7%였다. 735건 중에서 140건, 19%의 도서는 추천 이후에도 대출 증가 없었다. 추천도서는 대체로 추천된 당월에 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큐레이션 도서는 추천된 다음 달에 새롭게 대출 증가를 보이는 도서들이 상당수 나타났다.

추천된 달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대출량임을 고려할 때, 추천 당월에 10회 이상, 추천 2개월 후에 20회 이상 대출된 도서는 복본의 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추천 당월에 11회 이상 대출이 된 도서 1건, 추천 다음 달에 11회 이상 대출된 도서 7건, 추천 2개월 후 21회 이상 대출된 도서 2건의 복본 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중복을

제외하니 7건의 도서로 요약되었으며, 그중 1건은 2회 추천되어 중복 집계되었다.

추천 당월에 16회, 2개월 후까지 24회 대출된 『달려구트 꿈 백화점』은 26권의 복본이 있어 다 대출이 가능했으나 대출횟수가 복본의 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파친코』는 복본이 10권인데 비해 추천 다음 달에 복본의 수를 상회하는 대출횟수를 나타냈으며, 2개월 후에는 복본 수의 2배 이상의 대출횟수를 보여 소장된 복본 전체가 2회 이상 대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책들의 부엌』은 '22년 7월에 추천 도서로 선정된 후 8월에 큐레이션 도서로 다시 한번 소개되어, 복본 6권이 매월 대출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복본의 수가 대출량에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할 때, 이들 도서를 다 대출 도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제별로 대출 증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추천 전월의 대출량 대비 추천된 당월과 추천 2개월 후의 대출 증가량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언어, 역사 분야 도서는 추천 당월에 80% 이상이 대출 증가를 보였으며 예술, 철학 분야 도서도 70% 이상이 대출이 증가하였다. 2개월 후

<표 8>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 중 다대출 도서 현황

서명	발행연도	복본	추천구분	추천시기	n월	n+1월	n+2월
달려구트 꿈 백화점	2020	26	큐레이션	23년 3월	16	21	24
파친코	2018	10	큐레이션	23년11월	2	14	24
책들의 부엌	2022	6	큐레이션	22년 8월	6	12	18
책들의 부엌	2022	6	추천도서	22년 7월	5	11	17
아버지의 해방일지	2022	5	추천도서	23년 4월	8	11	18
흐르는 강물처럼	2024	5	큐레이션	24년11월	4	12	15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2019	12	큐레이션	24년 9월	6	11	15

\* n월: 추천된 달, n+1월: 추천된 다음달, n+2월: 추천 2달 후

에는 총류, 철학, 언어 분야의 선정 도서 90% 이상이 대출이 늘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추천된 도서의 70% 이상은 대출 증가를 보였다. 추천 후 2개월까지 전혀 대출이 늘지 않은 도서는 사회과학 분야와 문학 분야에 가장 많았는데, 해당 분야의 추천된 도서 중 26% 비율을 보였다. 다만, 분야별로 구분했을 때 각 분야 추천 도서의 모수가 크지 않고 문학 분야 추천 도서의 모수가 타 분야 대비 많게는 80배 차이가 나는 등 분야별 모수가 고르지 않아 주제별 대출 증가 현황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추천도서의 최신성에 따른 대출 증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추천연도와 발행연도 사이의 차이에 따른 대출 증가량을 추천 전월 대비 추천 당월 및 추천 2개월 후의 변화 값을 정리해 보았다. 이는 <표 10>과 같다. 추천도서와 큐레이션 도서의 발행연도별 분포는 차이가 큰 것을 고려하여 각각의 대출 증가량을 분석하였다.

추천도서의 경우, 당해연도 발행 도서가 선정된 경우는 추천 당월에 102건 중에서 81건(79.4%), 추천 2개월 후에는 93건(91.2%)이 대출 증가를 보였다. 대출횟수 면에서도 추천

<표 9>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의 주제분야별 대출량 변화

대출 증가(회)	n월(추천 당월)									
	총류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계
0	8	14	9	2	17	4	2	198	3	257
1~2회	10	31	14	3	27	13	7	278	15	398
3~4회	2	4	0	1	2	0	3	56	0	68
5~6회	0	0	0	0	1	0	0	9	0	10
7~8회	0	0	0	0	0	0	0	1	0	1
9~10회	0	0	0	0	0	0	0	0	0	0
11~20회	0	0	0	0	0	0	0	1	0	1
대출증가	12 (60%)	35 (71.4%)	14 (60.9%)	4 (66.7%)	30 (63.8%)	13 (76.5%)	10 (83.3%)	345 (63.5%)	15 (83.3%)	478 (65%)
계	20	49	23	6	47	17	12	543	18	735

대출 증가(회)	n+2월(추천된지 2개월차)									
	총류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계
0	2	4	6	1	10	2	1	112	2	140
1~2회	12	21	6	2	21	7	2	235	5	311
3~4회	5	19	9	2	11	5	5	95	9	160
5~6회	1	3	2	0	4	2	3	46	1	62
7~8회	0	1	0	1	1	0	1	23	1	28
9~10회	0	1	0	0	0	1	0	12	0	14
11~20회	0	0	0	0	0	0	0	18	0	18
21회 이상	0	0	0	0	0	0	0	2	0	2
대출증가	18 (90%)	44 (91.8%)	17 (73.9%)	5 (83.3%)	37 (78.7%)	15 (88.2%)	11 (91.7%)	431 (79.4%)	16 (88.9%)	595 (81%)
계	20	49	23	6	47	17	12	543	18	735

〈표 10〉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의 추천시기별 대출량 변화

대출 증가 (회)	n월(추천 당월)												계
	추천도서				큐레이션 도서								
	동년	1년	2년	3~5년	동년	1년	2년	3~5년	6~10년	11~19년	20년이상		
0	21	20	1	3	17	33	27	46	60	26	3	257	
1~2	67	85	10	1	14	58	28	55	58	20	2	398	
3~4	11	14	3	0	8	13	2	7	8	1	1	68	
5~6	3	2	0	0	2	0	1	2	0	0	0	10	
7~8	0	1	0	0	0	0	0	0	0	0	0	1	
9~10	0	0	0	0	0	0	0	0	0	0	0	0	
11~20	0	0	0	0	0	0	0	1	0	0	0	1	
증가	81 (79.4%)	102 (83.6%)	13 (92.9%)	1 (25%)	24 (58.5%)	71 (68.3%)	31 (53.4%)	65 (58.6%)	66 (52.4%)	21 (44.7%)	3 (50%)	478 (65%)	
계	102	122	14	4	41	104	58	111	126	47	6	735	

  

대출 증가 (회)	n+2월(추천된지 2개월차)												계
	추천도서				큐레이션 도서								
	동년	1년	2년	3~5년	동년	1년	2년	3~5년	6~10년	11~19년	20년이상		
0	9	15	1	1	6	12	7	34	40	12	3	140	
1~2	35	35	5	2	11	45	37	51	64	25	1	311	
3~4	30	48	6	1	10	23	7	15	11	8	1	160	
5~6	18	12	2	0	6	12	4	3	4	1	0	62	
7~8	3	7	0	0	2	6	1	2	6	1	0	28	
9~10	2	2	0	0	1	3	2	3	0	0	1	14	
11~20	5	3	0	0	5	3	0	3	1	0	0	18	
20이상	0	0	0	0	0	0	0	2	0	0	0	2	
증가	93 (91.2%)	107 (87.7%)	13 (92.9%)	3 (75%)	35 (85.4%)	92 (88.5%)	51 (87.9%)	77 (69.4%)	86 (68.3%)	35 (74.5%)	3 (50%)	595 (81%)	
계	102	122	14	4	41	104	58	111	126	47	6	735	

2개월 후에는 추천되기 전에 비해 11회 이상 대출이 증가한 도서가 5건, 5회 이상 증가 도서가 28건 등 추천 당월부터 3개월간 꾸준한 대출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발행된 지 2년 된 도서가 추천된 경우는 추천 당월 14건 중에서 13건이 대출이 늘었으나 대출되지 않은 1건은 추천 2개월 후에도 대출되지 않았다.

추천도서는 추천 당월에 즉각적인 대출 증가를 보인 도서가 다수였으나 큐레이션 도서의 경우는 추천 당월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해연도 발행 도

서가 선정된 경우는 추천 당월에 41건 중 24건(58.5%)이 대출이 늘었고 추천 2개월 후에는 35건(85.4%)이 대출이 늘었다. 추천 당해연도부터 2년까지의 발행 도서는 추천 2개월 후 85% 이상이 대출이 늘었으나, 발행된 지 3년 이상된 도서는 대출 증가 도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11회 이상 다대출 도서는 추천 당월에는 발행 3~5년 도서, 추천 2개월 후에는 당해연도 발행 도서, 1년 내 발행 도서, 3~5년 내 발행 도서, 6~10년 내 발행 도서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 4.4 추천된 도서와 미추천 도서의 대출 현황 비교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로 선정된 도서와 그렇지 않은 도서 사이의 대출 증가 현황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24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추천된 도서와 나머지 도서들에 대해 '23년 12월과 '24년 6월의 대출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천된 도서는 추천 도서 36건, 큐레이션 도서 59건 등 총 95건이다. 그중 추천도서와 큐레이션 도서의 중복 추천 도서를 제외하면 94건이었다. '24년 6월 대출목록은 436,976건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그중 '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 94건을 조사한 결과, 복본이 4권인 경우가 2건, 3권인 경우 1건, 2권인 경우 17건으로 추천 도서 분석 대상은 총 119건(94권에 대한 등록 레코드)이었다. 이들 119건 중에서 '23년 12월 대비 '24년 6월에 대출이 증가한 도서는 총 105

건으로, 88.2%가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증가가 없었던 도서는 14건(11.8%)이었으며, 46건(38.7%)이 1~2회 정도 대출이 늘어났다. 추천된 도서가 아닌 경우에는 전체 436,857건 중에서 '23년 12월 대비 '24년 6월에 대출이 증가한 도서는 57,979건으로 13.3% 비율이었으며, 대출 증가가 없었던 도서는 378,878건으로 86.7%를 나타냈다.

추천된 도서와 미추천 도서의 대출 증가 현황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의 경우,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언어, 역사 분야 도서가 100% 대출이 증가했고, 총류의 대출 증가 도서 비율이 가장 낮아 71.4%였다. 다만 예술 및 언어 분야는 자료가 1건뿐이어서 주제 분야에 따른 대출량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미추천 도서의 경우에는 미분류 도서를 제외하고는 자연과학 분야 도서가 15.4% 대출이 증가하여 가장 큰 대출 증가를 보였다. 반면에 사회과학 분야의 대출 증가 도서는 9.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11>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와 그 외 도서와의 대출 증가량 비교

대출증가	추천·큐레이션 도서	미추천 도서	계
0	14 (11.8%)	378,878 (86.7%)	378,892 (86.7%)
1~2회	46 (38.7%)	45,373 (10.4%)	45,419 (10.4%)
3~4회	24 (20.2%)	7,840 (1.8%)	7,864 (1.8%)
5~6회	19 (16.0%)	2,800 (0.6%)	2,819 (0.6%)
7~8회	7 (5.9%)	1,181 (0.3%)	1,188 (0.3%)
9~10회	6 (5.0%)	461 (0.1%)	467 (0.1%)
11~20회	3 (2.5%)	299 (0.1%)	302 (0.1%)
21~30회	0	22 (0.01%)	22 (0.01%)
31~40회	0	3 (0.001%)	3 (0.001%)
대출증가도서	105 (88.2%)	57,979 (13.3%)	58,084 (13.3%)
계	119	436,857	436,976

〈표 12〉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와 그 외 도서와의 분야별 대출 증가량 비교

대출 증가(회)	추천도서·큐레이션 도서									
	총류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계
0	2	2	0	0	4	0	0	6	0	14
1~2	2	10	1	1	9	0	0	21	2	46
3~4	1	4	2	0	5	1	0	10	1	24
5~6	0	1	3	3	0	0	0	11	1	19
7~8	1	0	0	0	1	0	0	4	1	7
9~10	0	1	0	0	1	0	1	3	0	6
11~20	1	0	0	0	0	0	0	1	1	3
증가	5 (71.4%)	16 (88.9%)	6 (100%)	4 (100%)	16 (80%)	1 (100%)	1 (100%)	50 (89.3%)	6 (100%)	105 (88.2%)
계	7	18	6	4	20	1	1	56	6	119

대출 증가(회)	미추천 도서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미분류	계
0	17,835	21,361	12,885	78,722	19,341	34,005	25,553	15,026	115,946	29,277	8,927	378,878
1~2	1,774	2,653	1,321	6,548	2,651	3,378	3,011	1,782	14,962	3,299	3,994	45,373
3~4	326	441	168	1,037	518	479	339	324	2,683	501	1,024	7,840
5~6	103	147	51	400	199	205	108	107	880	218	382	2,800
7~8	46	61	19	168	96	79	30	40	396	77	169	1,181
9~10	12	22	9	69	30	29	13	8	153	32	84	461
11~20	9	11	2	34	21	15	11	5	156	13	22	299
21~30	0	0	0	3	2	0	0	0	14	0	3	22
31~40	0	0	0	0	3	0	0	0	0	0	2	3
증가	2,270 (11.3%)	3,335 (13.5%)	1,570 (10.9%)	8,259 (9.5%)	3,518 (15.4%)	4,185 (11.0%)	3,512 (12.1%)	2,266 (13.1%)	19,244 (14.2%)	4,140 (12.4%)	5,680 (38.9%)	57,979 (13.3%)
계	20,105	24,696	14,455	86,981	22,859	38,190	29,065	17,292	135,190	33,417	14,607	436,857

〈표 13〉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와 그 외 도서와의 발행연도별 대출 증가량 비교

발행연도	추천·큐레이션 도서			미추천 도서			계
	대출증가	미증가	계	대출증가	미증가	계	
연도 미상	0	0	0	137 (0.2%)	364	501	501
70년 이전	0	0	0	17 (0.03%)	485	502	502
80년대	0	0	0	51 (0.1%)	5,190	5,241	5,241
90년대	0	0	0	668 (1.2%)	60,555	61,223	61,223
00년대	0	0	0	6,295 (10.9%)	129,571	135,866	135,866
10년대	9 (8.6%)	6	15	27,220 (46.9%)	148,467	175,687	175,702
20년대	96 (91.4%)	8	104	23,591 (40.7%)	34,246	57,837	57,941
계	105	14	119	57,979	378,878	436,857	436,976

〈표 13〉과 같이 발행연도별로도 비교해 보았다.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는 '10년 이후 발행

된 도서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출 증가 도서의 91.4%인 96건이 20년대에 발행된 도서

었다. 미추천 도서의 경우는 대출 증가 도서의 46.9%인 27,220건이 2010년대에 발행된 도서였고, 40.7%인 23,591건이 2020년대에 발행된 도서였다.

#### 4.5 결과 종합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 공공도서관은 신규 입수된 자료 중에서 주제별 분포를 고려하여 '월별 추천자료'를 선정하며, 이용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테마를 정하여 자료실별로 관련 도서를 선정하여 '주제가 있는 공간'을 구성한다. A 공공도서관의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의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는 총 736건으로, 월별 추천도서(일반인 대상) 243건, 큐레이션 도서(주제가 있는 공간) 493건이었다.

3년간의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736건 중에 문학 분야가 543건으로 73.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문학 분야로만 한정하여 큐레이션 했던 '22년과 '23년의 큐레이션 도서를 제외하고, 3년간의 추천도서와 '24년 큐레이션 도서 목록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아도 총 357건 중에서 문학 분야가 164건으로 45.9%를 구성하고 있었다. 추천도서의 경우 '22년 42.7%, '23년 46.7%, '24년 47.2%가 문학 분야 도서였으며, 큐레이션 도서는 '22년과 '23년에는 100%, '24년에는 47.4%가 문학 분야 도서였다.

또한, 이들은 최근 1~2년간 발행된 자료 중심으로 선정되고 있었다. 추천도서의 경우 추천연도 기준으로 당해연도 및 발행 1년 이내 자료를 선정한 비율이 '22년 92.7%, '23년 89.3%,

'24년 95.8%로 대부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었다. 추천도서는 새롭게 입수된 도서 중에서 선정하고 있으므로 최근 발행 도서의 선정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발행연도별 분포가 다양했던 큐레이션 도서도 당해연도 및 1년 이내 자료의 선정 비율이 '22년 13.9%, '23년 32.7%, '24년 52.9%였으며, 5년 이내 발행 자료로 확대해 보면 '22년 53.9%, '23년 56.8%, '24년 90.4%를 구성하였다. '22년과 '23년에는 문학 분야에서만 도서를 선정했던 점을 고려하면, 전 분야에서 도서를 선정하면서부터 최근 자료의 선정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A 공공도서관 장서 전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도서관 정보나루를 통해 '21년 12월부터 '25년 2월까지 39개월간의 정독 도서관 장서 대출목록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A 공공도서관 장서는 '22년 6월 총 420,390건, '24년 6월 436,976건이었으며, 이를 주제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 분야가 '22년 6월 126,720건(30.1%), '24년 6월 135,233건(30.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2025)의 출판물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문학 분야의 출판량이 가장 많아서 '21년 27.5%, '22년 29.2%, '23년 28.9%, '24년 28.8%를 구성한다. A 공공도서관의 장서 구성이 출판량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의 선정에 있어서도 문학 분야의 선정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발행연도별로는 2010년대 발행 도서가 '22년 6월에 178,646건(42.5%), '24년 6월에 175,703건(4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간 장서의 지속적 입수에 따라 최근 발행연도

장서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21년 12월에 대출이 전혀 되지 않은 자료의 비율은 16.8%(69,167건)였으며 '25년 2월에는 13.7%(61,322건)였다. 10회 미만의 대출을 기록한 자료가 가장 많았는데, '21년 12월에는 43.3%(178,242건)의 도서가, '25년 2월에는 44.2%(197,223건)의 도서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100회 이상 대출을 기록한 자료는 '21년 12월에는 3,136건, '25년 2월에는 3,519건으로 0.8%였다.

셋째,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의 대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 총 736건 중 대출목록에 없는 1건을 제외하고 735건에 대해 추천되기 1달 전과 추천 당월을 포함하여 3개월간의 대출 변화량을 조사하였다. 추천 당월에 대출이 발생한 자료는 478건으로 64.9%였으며, 추천 후 2개월 차에는 595건, 선정된 자료의 81%가 대출이 증가하였다. 추천도서의 경우는 추천 당월에 81.4%가 대출이 증가하고, 추천 후 2개월 차에는 89.3%가 대출이 증가했다. 큐레이션 도서는 추천 당월에 57%가 대출이 증가했고 추천 2개월 후에는 76.9%가 대출이 증가했다.

추천 및 큐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추천 당월에 전혀 대출되지 않은 자료는 735건 중에서 257건으로 35%를 차지했으며, 추천 2개월 후까지 한 번도 대출되지 않은 자료는 140건으로 19%였다. 추천도서 242건 중에서는 추천 당월에 45건(18.6%)이 대출되지 않았고, 2개월 후까지 대출되지 않은 자료는 26건(10.7%)이었다. 큐레이션 도서 493건 중에서는 추천 당월에 212건(43%)이 대출되지 않았고, 2개월 후까지 대출되지 않은 자료는 114건(23.1%)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는 대체로 이용자의 선택을 받아 추천 당월부터 대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천된 당월에 즉각 대출이 발생하는 비율은 최신도서 중심의 추천도서가 높았으며, 유사한 테마별로 자료를 선정하여 제공하는 큐레이션 도서의 대출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로 선정된 자료 중에서도 19%는 대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의 대출 현황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추천 당월에 가장 많이 대출이 이루어진 분야는 언어와 역사 분야로 추천된 도서의 83.3%가 대출되었으며, 2개월 후에는 총류, 철학, 언어 분야의 추천자료 90% 이상이 대출이 늘었다. 반면에, 추천 후에도 대출이 되지 않은 도서는 추천 당월에 총류의 40%(20건 중에서 8건), 추천 2개월 후에는 사회과학 분야의 26.1%(23건 중에서 6건)로 가장 높은 미대출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도서의 발행연도별로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추천 시기를 기준으로 1년 이내 발행된 도서는 추천 당월에 76.5%가 대출이 증가했으며, 당해연도 발행 도서와 3년 내 발행 도서도 각각 73.4%, 73.7%로 추천된 도서의 70% 이상이 대출이 늘었다. 추천도서 중에서는 추천 당월에 2년 내 발행 도서의 대출 증가가 92.9%로 가장 높았으며, 큐레이션 도서 중에서는 추천 당월에 1년 이내 발행 도서의 대출 증가가 68.3%로 가장 높았다. 추천 후 2개월 차에는 당해연도 발행 도서의 89.5%가 대출이 늘었으며, 1년 이내, 2년 이내 발행된 도서도 각각 88.1%, 88.9%가 대출이 증가했다. 추천도서 중에서는 당해연도 발행 도서의 91.2%, 1년 이

내 발행 도서의 87.7%, 2년 이내 발행 도서의 92.9%가 대출이 증가하였고, 큐레이션 도서에서도 당해연도 발행 도서의 85.4%, 1년 이내 발행 도서의 88.5%, 2년 이내 발행 도서의 87.9%가 대출 증가를 보였다. 반면에, 추천 이후에도 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추천 당월에는 발행된 지 11년 이상 20년 미만인 도서의 55.3%, 추천 후 2개월 차에는 발행 20년 이상인 도서의 50%가 해당되었다.

이상과 같이,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 중 추천 당월에 대출이 증가한 도서는 주제별로는 언어, 역사 분야, 연도별로는 발행 1년 이내 도서가 많았다. 추천 2개월 차에 대출이 증가한 도서는 총류, 철학, 언어 분야, 당해연도 발행 도서에서 많았다. 미대출 도서는 추천 당월에는 총류, 발행 11년 이상 20년 미만인 도서, 추천 2개월 차에는 사회과학 분야, 발행 20년 이상인 도서가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의 대출 현황을 미추천 도서의 대출 현황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24년 6월의 대출목록을 기준으로 '24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추천된 도서 119건(94권에 대한 레코드)과 나머지 미추천 도서의 '23년 12월 대비 대출 증가 현황을 조사하였다. '24년 6월 기준 장서는 총 436,976건으로, 미추천 자료는 총 436,857건이다. '23년 12월 대비 '24년 6월에 대출이 증가한 자료는 추천된 자료의 88.2%(119건 중에서 105건), 추천되지 않은 자료의 13.3%(436,857건 중에서 57,979건)였으며, 대출이 없었던 자료는 추천된 자료의 11.8%(14건), 추천되지 않은 자료의 86.7%(378,878건)였다. 대출횟수 면에서 5회 이상 대출된 자료는 추천된 자료의 29.4%(35건), 미추

천 자료의 1.1%(4,766건)였으며, 10회 이상 대출된 자료는 추천된 자료의 2.5%(3건), 미추천 자료의 0.1%(324건)였다.

발행연도별로는 추천 자료 중 대출이 증가한 자료 105건의 91.4%가 2020년대 발행 자료였으며, 미추천 자료 중 대출 증가 자료 57,979건의 46.9%가 2010년대 발행 자료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제 분야별로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언어, 역사 분야의 추천 자료가 100% 대출 증가를 보였으며, 미추천 자료 중에서는 자연과학 분야가 22,859건 중에서 3,518건이 대출 증가를 나타내 15.4% 비율이었다. 대출이 없었던 자료는 추천 자료 중에는 기술과학 분야가 20건 중에서 4건(20%)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추천 자료 중에는 사회과학 분야가 86,981건 중에서 78,722건으로, 90.5%가 대출이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통해,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로 이용자에게 추천된 자료는 그렇지 않은 자료에 비해 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천 자료의 88.2%가 대출이 증가한 반면, 미추천 자료의 13.3%만이 대출이 증가한 사실이 이를 설명한다. 대출이 증가한 자료는 추천 자료나 미추천 자료 모두 최근 10년 이내 발행된 자료에서 주로 나왔으며, 추천 자료에서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역사 분야(100%)가, 미추천 자료에서는 자연과학 분야(15.4%)가 대출 증가 비율이 높았다. 다만, 주제별 대출 증가 현황은 추천도서 735권 전체의 주제별 대출 현황과 일관되지 않아 주제에 따른 대출증가량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결론 및 제언

추천도서 서비스는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하여 도서를 이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공된다. 수많은 도서관의 장서 중에서 양질의 도서를 이용자가 발견하고 선택하도록 돕는다. 특정 주제,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 도서를 모아 소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역시 이용자에게 읽을 만한 도서를 소개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추천도서와 맥을 같이 하는 서비스이다. 다만, 이용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테마를 먼저 선정하고 해당 테마와 관련된 도서를 선정하여 소개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용자는 자신이 관심 있는 테마에 관한 도서를 큐레이션 장서를 통해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당 도서가 이용자의 선택을 받아 읽히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가 실제로 이용자에게 읽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의 대출 증가 여부를 A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의 A 공공도서관 '월별 추천도서(일반인 대상)'와 '주제가 있는 공간' 큐레이션 도서 데이터 736건을 수집하였다. 또한 도서관 정보나루에서 '21년 12월부터 '25년 2월까지 A 공공도서관 대출목록 39개 목록을 수집하여, 추천 도서별로 추천되기 전과 추천 후 2개월까지의 대출량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추천된 자료와 추천되지 않은 자료의 대출 증가 현황 비교를 위하여, '24년 6월 대출목록을 기준으로 '23년 12월 대출목록과 비교하여 대출량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A 공공도서관의 추천도서와 큐레이션 도서는 문학 분야의 도서가 45% 이상 비중 있게 선정되고 있고, 추천도서는 발행된 지 1년 이내의 최신 자료가 90% 이상, 큐레이션 도서도 5년 이내의 자료가 90% 이상 선정되고 있었다. 이는 이용자의 관심 제고 효과 및 도서관 전체 장서의 구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A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문학 분야가 약 30%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최신 자료는 매월 지속적으로 입수되어 장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는 대체로 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천된 도서의 64.9%가 추천 당월에 대출이 증가했으며, 추천 후 2개월 후에는 81%의 도서가 대출 증가를 보였다. 특히, 추천도서는 큐레이션 도서 대비 추천 당월에 81.4%가 대출이 늘어 즉시적인 효과를 보였다. 큐레이션 도서는 추천 당월 대출은 57%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개월 후에는 76.9%가 증가하여 2개월 만에 대출이 20%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추천도서 대비 더 많은 도서를 보다 긴 간격으로 선정하며 자료실 별로 분산하여 전시하고 있는 큐레이션 도서는 시간이 갈수록 대출 증가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추천되지 않은 자료와 비교해 보면, 추천된 자료는 6개월 후 88.2%가 대출이 증가한 반면 미추천 자료는 13.3%만이 대출이 증가하여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의 대출 증가 효과가 뚜렷했다.

셋째, 추천 및 큐레이션이 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발행 2년 이내의 최신 자료일수록 더 크게 나타났으며, 주제 분야별로는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의

주제별 분석에서는 사회과학 분야가 추천 2개월 후에도 26.1%가 대출이 없었으나, 미추천 자료와의 비교 분석에서는 추천된 사회과학 분야 자료의 100%가 대출이 증가하는 등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추천여부와 관계 없이 최신 자료의 대출이 발행연도가 오래된 자료에 비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 서비스는 이용자의 도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해당 도서의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의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 서비스는 이용자의 도서 선택에 도움을 주고 도서 이용을 증가시키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천도서 대비 대출 증가 속도가 느린 큐레이션 도서는 보다 장기간 전시 및 홍보를 통해 이용자의 관심을 제고한다면 꾸준한 이용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최신자료 위주의 도서 선정은 추천 및 큐레이션의 효과를 높이는데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되었으며, 문학분야의 비중을 다소 낮춰 타 분야의 도서 선정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전체 장서에서 문학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대비 추천 및 큐레이션 도서의 문학 분야 비중이 다소 높으며, 추천 도서의 주제 분야보다는 추천 여부 자체가 도서 대출 증가에 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서비스의 효과를 대출 관점에서 조사해 보았다. 다만, 도서관 정보나루를 통해 입수한 A 공공도서관의 대출목록은 어린이자료와 비도서자료 등이 모두 포함된 전체 장서 목록으로, 성인 대상 추천 도서 목록과의 비교 대상이었던 미추천 도서에 비도서 및 어린이 자료 등을 포함한 채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도서가 최근 발행된 자료 중심으로 선정되고 있는 반면, 비교 대상이었던 미추천 자료 중에는 90년대 이전 자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비교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외에도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서비스의 효과는 해당 도서의 대출 증가만으로 설명하기는 부족하고, 이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다양한 면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다솜, 윤유라 (2022). 지역대표도서관의 추천도서목록의 현황과 과제. 인문사회21, 13(6), 463-476. <http://dx.doi.org/10.22143/HSS21.13.6.32>
- 곽우정, 노영희 (2020). 도서관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도서관 관계 형성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1), 137-162. <https://dx.doi.org/10.14699/kbiblia.2020.31.1.137>
- 국립중앙도서관 (2025). 도서관 정보나루. 출처: <https://www.data4library.kr>
- 김미현, 박지홍 (2024). 공공도서관 북큐레이션 서비스 품질이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8(2), 199-223. <http://dx.doi.org/10.4275/KSLIS.2024.58.2.199>

- 김영석, 박연식, 이용주 (2018). 북 큐레이션, 책으로 말을 걸다. 경기도도서관총서, 21. 수원: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 남영준 (2021). 사서추천제도와 베스트셀러 목록의 활용성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8(3), 311-334. <http://dx.doi.org/10.3743/KOSIM.2021.38.3.311>
- 대한출판문화협회 (2025). 2024 한국출판연감: 2024년 기준 한국 출판생산통계. 출처: <https://member.kpa21.or.kr/wp-content/uploads/sites/2/2025/05/2024년-출판생산통계최종.pdf>
- 도서관법, 법률 제19592호.
- 문화체육관광부 (2025).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출처: <https://www.libsta.go.kr/statistics/public/stat>
- 박미진 (2023).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추천도서 목록의 특징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4), 101-12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3.34.3.101>
- 백지원 (2018). 공공도서관 테마 컬렉션의 기능과 특성: 이용자 중심 분류의 관점에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4), 51-69.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4.051>
- 백지원, 표순희 (2020). 공공도서관 테마 컬렉션 효과에 대한 이용자 인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3), 115-139.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3.115>
- 위키백과 (2006. 3. 26.). 긴 꼬리.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긴\\_꼬리](https://ko.wikipedia.org/wiki/긴_꼬리)
- 이수상, 이태석, 주소현 (2022). 국내 공공도서관 온라인 북큐레이션 서비스의 내용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4), 189-209. <http://dx.doi.org/10.16981/kliss.53.4.202212.189>
- 정유라, 이지연 (2017). 공공도서관의 테마전시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 및 이용행태 변화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2), 27-45. <http://dx.doi.org/10.3743/KOSIM.2017.34.2.027>
- 표순희, 백지원 (2019). 북큐레이션을 통한 테마 컬렉션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연구: 공공도서관 담당자의 심층면담을 통해.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189-211.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4.189>
- Baker, S. L. (1986). The display phenomenon: an exploration into factors causing the increased circulation of displayed books. *Library Quarterly*, 56(3), 237-257.
- Bhaskar, M. (2016). *Curation: The Power of Selection in a World of Excess*. 최윤영 옮김(2016). 큐레이션: 과감히 덜어내는 힘. 서울: 예문아카이브.
- Camacho, L., Spackman, A., & Cluff, D. (2014). Face out: the effect of book displays on collection usage. *Journal of Business & Finance Librarianship*, 19(2), 114-124. <https://doi.org/10.1080/08963568.2014.883874>
- Jones, D. Y., McCandless, M., Kiblinger, K., Giles, K., & McCabe, J. (2011). Simple marketing techniques and space planning to increase circulation. *Collection Management*, 36(2), 107-118. <http://doi.org/10.1080/01462679.2011.553774>

Ranasinghe, W. M. T. D. & Chung, J. M. (2019). Understanding the curation service in libraries: is it a revolution or an evolution of reference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2), 215-235.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06.215>  
Wikipedia (2001. 11. 4.). Pareto principle. Available: [https://en.wikipedia.org/wiki/Pareto\\_principle](https://en.wikipedia.org/wiki/Pareto_principle)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k, Ji-Won & Pyo, Soon-Hee (2020). Study on users'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me collection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3), 115-139.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3.115>
- Baek, Ji-Won (2018).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library theme collection: focusing on the user-centered classification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4), 51-69.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4.051>
- Chung, Yoo-Ra & Lee, Jee-Yeon (2017). A study on public library users' perceptions and behavior changes after using the theme display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2), 27-45. <http://dx.doi.org/10.3743/KOSIM.2017.34.2.027>
- Go, Dasom & Youn, Youra (2022). Current status and tasks of recommended book lists of regional representative librari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3(6), 463-476. <http://dx.doi.org/10.22143/HSS21.13.6.32>
- Kim, Mi-Hyun & Park, Ji-Hong (2024). The influence of public library book curation service quality on the continued use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8(2), 199-223. <http://dx.doi.org/10.4275/KSLIS.2024.58.2.199>
- Kim, Young-seok, Park, Youn-sik, & Lee, Yong-ju (2018). *Book Curation*. Gyeonggi-do Library Series, 21. Suwon: Gyeonggi-do Cyber Library.
-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2025). *Korean Publication Yearbook*. Available: <https://member.kpa21.or.kr/wp-content/uploads/sites/2/2025/05/2024년-출판생산통계최종.pdf>
- Kwak, Woojung & Noh, Younghee (2020). A study on user-library relationship with the library curation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1), 137-162. <https://dx.doi.org/10.14699/kbiblia.2020.31.1.137>
- Lee, Soo-Sang, Lee, Taeseok, & Joo, So-Hyun (2022). Content analysis of online book curation services in Kore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Society, 53(4), 189-209. <http://dx.doi.org/10.16981/kliss.53.4.202212.189>
- Library Law. Law 19592.
-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2025).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Available: <https://www.libsta.go.kr/statistics/public/stat>
- Nam, Young Joon (2021).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librarian recommendation system and bestseller lis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3), 311-334. <http://dx.doi.org/10.3743/KOSIM.2021.38.3.311>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5). Library Bigdata. Available: <https://www.data4library.kr>
- Park, Mijin (2023).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library recommended book lists for teens and the way to improv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4), 101-12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3.34.3.101>
- Pyo, Soon-Hee & Baek, Ji-Won (2019). A study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me collections through book curation: in-depth interview with public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4), 189-211.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4.189>
- Wikipedia (2006. 3. 26.). Long tail. Available: [https://ko.wikipedia.org/wiki/긴\\_꼬리](https://ko.wikipedia.org/wiki/긴_꼬리)

